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0, pp. 409-416,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0.409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정도: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서지혜, 정은영*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Knowledge and attitude of patient safety, safety performance among caregivers: In nursing home

Ji-Hye Seo, Eun-Young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a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수행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는 S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수행,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에 대한 태도였으며 설명력은 36.1%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반복적 교육이 필할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내 올바른 안전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주제어 : 노인요양시설, 수행, 안전, 요양보호사, 지식, 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ursing home caregivers' safety knowledge, safety attitude and safety performance; then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them, an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aregivers' safety performance. The study method was conducted by using SPSS WIN 21.0 program of 134 questionnaires surveyed in S city.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with caregiver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attitude. Additionally safety attitude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safety performance.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erformance. These influential factors explained their safety practice behavior 36.1%.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hat can form a proper safety culture in the nursing home as well as repetitive training centered on practices that can affect the safety performance of caregivers.

Key Words : Nursing-home, Performance, Safety, Caregiver, Knowledge, Attitu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초고령시대를 2025년으로 예상하면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Cheongam College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Jung(1130jey@hanmail.net)
Received July 28, 2020 Revised October 7,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서 우리나라는 초고령 시대로 가장 빠르게 진입하게 되는 국가라고 전문가들은 예측 하고 있다[1]. 최근 부모 부양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5%이지만 가족과 정부가 함께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8.3%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효사상을 강조하면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생각 했던 과거와 다른 사회적 현상이며 이제 부모 부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인지하면서 정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3], 이후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이 개설되었으나 그 중 노인요양시설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2,933개에서 2018년 3,390으로 15% 증가하게 되었다[4]. 노인요양시설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5,6]. 특히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인은 신체 노화로 인해 보행 및 균형 능력 저하, 시력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우울, 인지기능 장애 등 심리적 문제점이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다[7,8]. 노인이 안전사고에 취약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나타나면서 2011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배상을 책임지게 되면서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들 대상 안전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9].

안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10] 안전사고 건수도 2014년 297,337건에서 2016년에는 303,5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1].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이 형성되어야 한다[12].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로 변화시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판단하에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병원 등에서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다[10].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에 대한 정보를 의사, 간호사,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후 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13].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서 안전수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노인요양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안전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낙상, 욕창, 감염, 화재 등 단편적인 연구만[14-17]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양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요양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노인요양시설에서 주된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을 위한 융·복합적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d)=.15, 검정력(1-β) .90, 예측요인 7개로 다중회귀분석

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123명이었으며,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48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140부를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13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령, 교육정도, 종교, 직종, 노인요양시설에서의 근무기간, 최근 1년 동안 노인 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 유무, 안전교육에서 받고 싶은 교육 내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안전에 대한 지식

안전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Choi와 Lee[18]의 도구를 바탕으로 Kang와 Lee[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 확인 2문항, 감염 9문항, 낙상 4문항, 안전사고 2문항, 화재 3문항, 교육 1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며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최저 0점부터 21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ang와 Lee[19]의 연구에서 도구의 KR-20 계수는 .68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KR-20 계수는 .70이었다.

2.3.3 안전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Park, Kim, Ham[20]이 개발한 도구를 Kang와 Lee[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7,8,9,11,12,14는 역문항으로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역환산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Kang[19]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1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3.4 안전수행

안전수행의 측정도구는 안전순응과 안전참여의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안전수행의 측정도구는 Griffin & Neal[21]이 개발한 안전수행 도구를 Kim과 Park[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도구는 안전표준에 대한 순응행위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순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이었고, Kim과 Park[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2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해 C대학교 생명윤리심의의원회(승인번호: 20-HR-006-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시작하였다. 연구 자료는 연구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익명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다. 연구 참여 시 연구 자료의 접근 제한성, 보호 방법, 중도 철회 뿐 아니라 본 연구과 관련된 불이익과 무해성 등에 대한 설명도 실시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Scheffe test를 사후분석을 하였다.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 대상자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50-59세가 65명(48.5%)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여성이 128명(95.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있음'이 98명(73.1%), 경력은 '1년 미만'이 54명(40.3%)로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교육에 대한 경험은 '있음'이 90명(6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받고 싶은 안전교육은 '감염' 32명(28.6%), '약물투여' 24명(21.4%),

'욕창' 22명(19.6%), '소방안전' 15명(13.4%), '낙상' 10명(8.9%), '기타' 9명(8.0%)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4)

Variables	Categories	n(%)
Age (year)	〈39	11(8.2%)
	40-49	30(22.4%)
	50-59	65(48.5%)
	〉59	28(20.9%)
Sex	Male	6(4.5%)
	Female	128(95.5%)
Religion	Yes	98(73.1%)
	No	36(26.9%)
Total work experience (Months)	Under 12	54(40.3%)
	12-24	27(20.1%)
	25-36	17(12.7%)
	37-60	9(6.7%)
	Over 61	27(20.1%)
Educational experience	Yes	90(67.2%)
	No	44(32.8%)
Education need	Infection	32(28.6%)
	Fall	10(8.9%)
	Fire	15(13.4%)
	Drug	24(21.4%)
	Bed-sore	22(19.6%)
	Etc	9(8.0%)

3.2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을 분석한 결과 안전에 대한 지식은 21점 만점에 평균 12.00점(±0.18)이었고 태도는 전체 문항 평균 5점 만점 4.03점(±0.04)으로 나타났다. 안전수행은 전체 문항 평균 5점 만점에 4.16점(±0.41)으로 나타났으며, 하부 요인별로 안전참여 4.16점(±0.47), 안전순응이 4.16점(±0.0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Safety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of participants

Variables		Min	Max	Range	Mean±SD
Safety knowledge		21	1-21	7	12.00±0.18
Safety attitude		5.0	1-5	2.64	4.03±0.04
Safety performance	Safety compliance	5.0	1-5	2.00	4.16±0.04
	Safety participation	5.0	1-5	2.88	4.16±0.47
	Total	5.0	1-5	2.86	4.16±0.41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태도는 교 육경험(t=2.35, p=.02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Safety knowledge, performa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afety knowledge		Safety attitude		Safety performanc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year)	〈39	13.09±2.02	2.19 (.091)	4.05±0.43	0.12 (.947)	4.09±0.56	0.36 (.780)
	40-49	12.20±1.95		4.03±0.57		4.10±0.48	
	50-59	12.06±2.07		4.05±0.50		4.19±0.46	
	〉59	11.25±2.50		3.98±0.47		4.19±0.48	
Sex	Male	12.66±2.73	0.76 (.449)	3.94±0.70	-0.47 (.634)	3.94±0.43	-1.17 (.242)
	Female	11.97±2.14		4.04±0.50		4.17±0.48	
Religion	Yes	12.08±2.26	0.65 (.516)	4.07±0.51	1.34 (.181)	4.18±0.48	0.73 (.464)
	No	11.80±1.90		3.94±0.49		4.11±0.46	
Total work experience (Months)	Under 12	11.64±2.08	0.90 (.461)	3.97±0.45	1.07 (.371)	4.11±0.49	1.34 (.257)
	12-24	12.03±2.37		3.98±0.69		4.21±0.48	
	25-36	12.47±1.97		4.01±0.55		4.00±0.49	
	37-60	11.77±0.97		4.13±0.38		4.38±0.38	
	Over 61	12.48±2.50		4.20±0.36		4.23±0.44	
Educational experience	Yes	12.21±2.13	1.01 (.310)	4.15±0.49	2.35 (.020)	4.23±0.45	1.45 (.149)
	No	11.80±2.29		3.95±0.44		4.11±0.46	

3.4 대상자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과의 관계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18, p=.036) 안전수행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r=.10, p=.231). 안전에 대한 태도는 안전수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 p<.001).

Table 4. Relation of Safety knowledge, attitude, performance

Variables	Safety knowledge r(p)	Safety attitude r(p)	Safety performance r(p)
Safety knowledge	1		
Safety attitude	.18* (.036)	1	
Safety performance	.10 (.231)	.61* (<.001)	1

* p<.05

3.5 대상자의 안전수행 영향요인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 시 사용한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안전수행의 차이가 있는 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태도를 포함 시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5.00, p<.001). Durbin-Watson 값은 2.12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TL)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을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n Safety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Adj.R^2
Constant	1.84	0.27		6.81 (<.001)	.361
Safety attitude	0.57	0.06	0.61	8.61 (<.001)	
Durbin-Watson 2.120, F=75.008. p<.001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태도(β=.605, t=8.61, p<.001)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1%이었다. 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안전수행 정도를 확인하고 안전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융·복합적으로 파악하여 안전수행 능력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싶어하는 안전교육은 감염 관련 교육이 28.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COVID-19로 인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재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감염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COVID-19 전과 후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직접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지식은 21점 만점에 12점이였으며 정답률은 57.1% 이었다. Kang와 Lee[19]의 연구결과에서의 정답률 68.8%보다 낮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Choi와 Lee[23] 연구결과에서 임상실무 경험과 교육경험이 많을수록 환자안전관리 지식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Kang와 Lee[19]의 연구대상자는 3년에서 6년 근무자가 많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년 미만의 근무자가 많았기 때문에 지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하여 근무하는 돌봄 제공자 중 요양보호사의 이직률이 가장 높았다[25]. 이직률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한 곳에서의 근무경험이 짧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환자안전에 관한 지식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입사 초기 때부터 체계적인 환자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에서 직무만족도를 높이면서 이직율을 낮출 수 있는 시설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는 5

점 만점에 4.03점 이였으며 Kang와 Lee[19]의 연구결과에서의 3.25점보다는 높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12]. 따라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획 시 올바른 지식 전달과 함께 이에 맞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 정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안전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교육 유무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교육은 대상자의 지식 증가뿐 아니라 태도에도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요소이다[12].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단순히 실시 여부 가능성이나 실시 횟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해야 한다. 특히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태도 변화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27] 요양보호사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환자안전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이면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환자안전수행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4.16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Oh[26]의 연구결과 3.64점, Kang와 Lee[19]의 연구결과 4.10점, Moon과 Lee[27]의 연구결과 3.9점과 비슷하다. 하지만 요양시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비교해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다[28]. 실제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생활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환자안전수행과 관련하여 핵심인력 이라는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실기 위주의 환자안전수행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안전수행과 안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ang와 Lee[19]의 연구와 일치할 뿐 아니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3,29,30]. 본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식증가가 행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지식 증가를 위한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주기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요양보호사를 위한 주된 교육 내용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한 반복적이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위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36.1% 설명력으로 안전에 대한 태도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Kang와 Lee[19]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전수행과 태도가 설명력 48%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노인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들에게 필요한 필수 능력 중 하나가 긍정적 태도와 안전수행능력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중요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그들의 수행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시 태도 변화는 단시간에 유도하기 어렵다[27]는 것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결과 요양보호사는 감염병 관련 안전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안전 관련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육 경험이었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에 대한 태도와 안전수행,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안전에 대한 지식과 안전수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안전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전에 대한 태도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6.1% 이다. 요양보호사의 안전수행 정도를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요구도와 각각의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 사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전환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뿐 아니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조직 안전문화 개발과 정책적 수립이나 실무 중심의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19). *Estimated Population by Major Age Groups.* Retrei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

[2] Statistics Korea. (2018). *Korean Social Trends* Retreived from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ntc/1/index.board

[3] Long-term Care Insurance. (2019). *System Outline*. http://www.longtermcare.or.kr

[4] Statistics Korea. (2018). *Senior Welfare Facilities.* Retreived from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36&inputYear=2019

[5] J. E. Seok. (2014). A Study on the Concept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Service Quality – The Voice of Service Field for 'Good Care'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1),* 221-249.

[6] H. S. Lee & S. H. You. (2013).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Long-term Care Worker Mmanagement.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7(3),* 145-181. DOI : 10.24210/kapm.2013.27.3.007

[7] M. H. Lim & I. S. Ko. (2012). Risk Factors Leading to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4(1),* 1-11.

[8] S. H. Yoon, B. S. Kim & S. Y. Kim.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atient Safety Culture for Nursing Hom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3),* 379-388. DOI : 10.4040/jkan.2013.43.3.379

[9] J. Y. Hong. (2015). *Perception on Patient safety Culture of Care Helper in Nursing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gyang University, Seoul.

[10] S. K. Jeong, S. A. Ahn, J. H. Kong, H. J. Park, J. H. Seo, E. J. Choi, S. N. Choi & E. Y. Jung. (2019).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on Safety Practice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nvergenc Society, 10(3),* 363-371. DOI: 10.15207/JKCS.2019.10.3.363

[11] Statistics Korea. (2018). *Accident status.* Retrei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7

[12] J. Coreil. (1997). *Health behavior in developing country.* In D. S. Gohman(Ed). Handbook of Health behavior research Ⅲ 182-183. New York: Plenum Press.

[13 E. Y. Jung, J. H. Kong & J. H. Seo. (2017). Attitude to Death, Perception and Education Training Needs on the End-of-Life care on Caregiv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5(4),* 57-66. DOI : 10.15268/ksim.2017.5.4.057

[14] A. J. Park, N. Y. Lim, Y. S. Kim, Y. K. Lee & J. H. Song. (2011). Incidence and Predictors of Falls in 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Muscle Joint Health, 18(1),* 50-62. DOI : 10.5953/JMJH.2011.18.1.050

[15] S. Y. Choi. (2009). *Characteristics and risk factors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in Korean Nursing h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6] S. H. Lee. (2010). *The Status of Pressure Ulcer among Elders in Nursing Homes and Geriatric Hospit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7] J. S. Park. (2017).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Criteria for Fire Safety in Elderly Care Facility.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7(5),* 189-195.

[18] S. H. Choi & H. Y. Lee. (2015).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racti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in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184-192. DOI : 10.11111/jkana.2015.21.2.184

[19] H. K. Kang & E. S. Lee. (2018).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toward Patient Safety and Patient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Long-Term Care Hospitals' Nursing Assista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19(10), 194-205. DOI : 10.5762/KAIS.2018.19.10.194

[20] M. J. Park, I. S. Kim & Y. L, Ham. (2013). Development of a Perception of Importanc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Scale (PI-PSM) for Hospital Employee.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3(5),* 332-341. DOI : 10.5392/JKCA.2013.13.05.332

[21] A. Neal & A. Griffin. (2006). A study of the lagged relationships among safety climate, safety motivation, safety behavior, and accidents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1(4),* 946-977.

[22] K. S. Kim & Y. S. Park. (2002). The Effects of Safety Climate on Safety Behavior and Accident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15(1),* 19-39.

[23] S. H. Choi & H. Y. Lee. (2015).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Practice of Patient safety management in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1(2),* 184-192. DOI : 10.11111/jkana.2015.21.2.184

[24] Statistics Korea. (2019). *Turnover experience and turnover over the past year.* Retrei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4_C010&vw_cd=MT

[25] E. Y. Jung, J. H. Kong & J. H. Seo. (2018).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on Behavior of Tuberculosis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43(4),*

213-223.
DOI : 10.5393/JAMCH.2018.43.4.213

[26] H. S. Oh. (2019). *The Effects of Nursing Assistants' Recognition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Patient Safety Culture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Long-term care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Junju.

[27] M. J. Moon & S. H. Lee. (2019). Influencing Factors on Patient Safety Behaviors of Care Workers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3(1),* 98-108.
DOI : 10.5932/JKPHN.2019.33.1.98

[28] J. H. Moon & S. H. Yoon. (2018).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Nursing Activities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4(4),* 307-318.
DOI : 10.11111/jkana.2018.24.4.307

[29] J. H. Park. (2011).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on Skill of Nursing Students toward Patient Saf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30] S. H. Son. (2016). *A Study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Practice in Safety Mnag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서 지 혜(Ji-Hye Seo) [정회원]

· 2008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서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응급처치, 재난·안전, 보건교육, 아동간호
· E-Mail : snsjh0107@gmail.com

정 은 영(Eun-Young Jung) [정회원]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석사)
· 2013년 2월 :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재난·안전, 보건정책, 지역사회간호, 법규
· E-Mail : 1130jey@hanmail.net